

투데이 칼럼

붉은 닭에서 찾는 우리의 희망

**꼬** 꼬끼오~!"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난다. 십간(十干)중에서 정(丁)은 음양 오행에서 '불'을 뜻하고 '유(酉)'는 '닭'을 의미하니 올해는 '붉은 닭'의 해다. 닭은 예로부터 어두운 새벽녘에 홀로 울어 밝은 태양을 불러들이는 상서로운 존재로 인식됐다. 특히, 고대 한국인의 의식 속에 닭은 신성한 새, 신조(神鳥)로 남아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닭을 기록한 삼국지(三國志),동이전(東夷傳),위서(魏書),한전(韓傳)을 통해 한반도에 재래닭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닭은 우리나라 각종 신화와 지명에도 그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가장 오래된 신화는 신라로부터 출발한다. 신라는 국명이 정해지기 전 탈해 왕때까지 계림(鷄林)으로 불렸다. 또 도인들의 수행처로 유명한 '계룡산'도 닭과 관련있다. 천황봉(845m)을 중심으로 연천봉, 문필봉, 삼불봉, 관음봉 등 엇비슷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늘어선 모습이 마치 닭벼슬을 쓴 용을 닮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룡산이다. 고구려에도 닭을 숭배하는 풍속이 있다. 무용총 천장에 닭이 한 쌍 있고, 인도에서 고구려를 계귀국이라

고 부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인들이 경주 주둔 고구려 군인들을 공격할때 '수닭을 죽여라'라고 했다는 '일본서기(日本書記)'의 기록도 있다. 또, 천마총을 발굴했을때 단지 안에 수십 개의 달걀이 들어있었고 신라의 여러 고분에서도 달걀이 발견됐다. 능 속에 달걀과 달걀이 들어있었던 것은 저 세상에 가서 먹으라는 부장식당일 수도 있고, 일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재생, 부활의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문헌 기록뿐만 아니라 천마총의 달걀껍질이나 지산동 고분의 달걀, 백제 고배속의 달걀껍질에서 알수 있듯이 닭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속에 함께 해온 중요한 생물이자 재물이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안팎으로 힘든 한해였다. 말도 안되는 국정농단에 권력부재 국가의 무력함, 그로인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 조류독감으로 인한 어처

구니없는 달갈걀 인상에 경기불황, 갖가지 사회적 불안을 안긴 흉악 범죄들, 그리고, 여전히 취업대란등 크고 굵직한 사건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고도 한참이 지난 지금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며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우리가 잘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이런 난국에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으면서 절망만을 얘기하고는 견딜수가 없어서 우리는 절망속에서 희망을 얘기한다. 가장 큰 숙제를 풀기 위해 각각의 이념과 판단으로 다수가 촛불을 들고 나가거나 또는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무언가를 외치고 표출했다. 촛불을 들었던 태극기를 들었던 당장의 원하는 결과는 서로 상이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분명 하나일 것이다. 좋은 국가를 만들고 행복한 국민이 되고 싶은 것이다.



김경인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홍보팀장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찾고 싶은 것이다. 닭의 울음은 개혁의 소리다. 닭의 울음은 새벽을 깨우는 임금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벽을 알리는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태양의 새이기 때문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일시에 밤에 횡행하던 귀신이나 요괴도 사라져버린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닭의 울음은 때를 알려주는 '시보(時報)'의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지의 능력이 있기도 하다고 믿었다. 닭이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상에서 생활하는 존재라는 이중성은 어둠과 밝음을 경계하는 새벽의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2017희망과 개혁의 파워인' 붉은 닭띠의 해! 어두움을 보내고 반드시 새벽이 오듯 우리는 희망을 찾는다. 제대로된 진정성 있는 국가 지도자를 뽑고 국가, 사회 전반적인 부조리의 잘못된 관습들과 이별하고 우리의 국민 의식과 수준 또한 한 단계 발전해 나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진국가이길 희망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 정유년엔 난세를 정리하고 희망으로 가득찬 평온한 한해이길 기대한다.

독자제언

성숙한 '촛불' 시위가 밝혀올 변화들

대한민국의 헌법 제2조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에 나오기까지의 모든 이들은 저마다 절박함과 정당성을 지닌 사연을 지닌 채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표현방법과 양상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집회시위는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 다소 과격하며 심지어 폭력적이거나 타인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시위 현상이 되어 바깥의 일반시민이 바라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고, 그들의 억울한 절규나, 사회의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의 구호마저도 평가절하 되어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한 차원에서 최근 일어난 10차례 이상의 평화로운 촛불집회는

시민들과 또한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을 비롯한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분노한 백만명이 넘어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시태가 일어나지 않는 평화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쇠파이프와 죽봉, 물방이로 상징되는 불법시위 대신 문화공연, 풍자, 공연, 자유발언, 촛불과도타기 등 하나의 커다란 문화 축제 형태로 이루어진 평화 집회 시위로 치러내어 am 같은 외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내외 언론이 찬사와 공감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이번 시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국민들조차도 절제되고 품격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놀라움을 발견하고 적지 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백경주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준강간은 엄연한 '성범죄'

흔히들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바로 심신상실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는 준강간이 그것이다. 가령 자고 있거나 주취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상대와 간음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준강간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대개 상대가 반항하지 않아 목시적 합의가 이뤄졌기에 강간범으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주장일 뿐 간음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로 죄가 성립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따라서 술자리를 함께한 상대가 과음으로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목시적 합의를 했다고 착각해 준강간을 저지른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준강간은 엄연히 성범죄로 피해자에게 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가해자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주취 상태에서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그 누구도 준강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순간의 욕정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면 평생 후회해도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백재원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기동대 순경

시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 신규 사업 추진 힘내야 한다

전북도는 신규 사업 추진에 힘내야겠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역 발전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시도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발전된 모습은 경쟁의 소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의 신규사업 추진이 관심의 대상이다. 저번에 2018년과 2019년을 미리 내다보고 지역 발전 계획을 다듬고 있는 게 보기가 좋았던 것이다. 그때 전북도가 총 370건 6천600억원 규모의 일거리를 찾은 것은 도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정부가 때론 건축 재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북도의 신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 신규 사업과 발굴과 함께 그 논리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거듭 강조해 말하거나 신규사업의 당위성은 중요하다. 그 당위성을 설득해야만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전북도는 신규 사업들이 매년 큰 도전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사가 오래이기에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낙후돼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면 힘차게 뛰어라 한다. 힘차게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저 자세를 보이지 말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진취적인 자세가 있어야 끈덕진 행보도 가능할테니 말이다. 올해는 반드시 그런 행보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볼 일이다. 새만금사업 말고는 다들 고만고만한 게 지역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SOC 확충에도 계속 힘내야 한다. 아쉽게 발표했던 탄소산업 구상도 잊지 말아야겠다. 2020년까지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 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던 구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도내 문화시설 운영 계획이 궁금하다

도내 문화 관계자들의 올해 운영 계획이 궁금하다. 각 지자체들도 그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야겠다. 지난해 도내의 문화 시설 태반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기에 하는 말이다.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다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도 적었다니 그래서 안 되겠다.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문화 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과 달라진 면모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도내 각 지자체들이 문화 향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므로 문화 시설이 많은 것을 두고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문화시설 태반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다, 도내 거의 모든 문화 시설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도 못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 향수 기회도 많이 제공하지 못하면서 지자체 별로 수십억 원에서 수억 원 단위의 큰 짐을 안기고 있는 거러면 운영 방식을 재고해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하는 정신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엄청난 액수의 운영비가 들어갔으면 그에 맞는 실적이 있어야 맞다. 그런데 도내 문화시설 태반이 그러기는 고사하고 지자체에 큰 짐을 안기고 있으니 그 모양이 안 좋다. 지난해 보고에 따르면 들어간 운영비에 비해 그 수익이 30% 미만이었다. 문화시설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돈을 벌자고 설립한 것은 아니기에 그 지조한 실적을 두고 오래도록 공박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반성할 부면은 반성해 마땅하다. 봄이 가까운 지금, 도내 문화 관계자들의 분발이 요망된다. 지난해의 성적표를 보면 도내 모든 문화 시설이 저조한 중에 익산 예술의 전당이 더 저조했다. 운영비는 57억9천4백만 원인데 수익이 겨우 1억 2백만 원이었다는 보고는 오래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할 만하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의 일을 다시 들여다내 거둬들여 줄려고 해서가 결코 아니다. 올해에는 뭔가 빛나는 실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올해와 여름 가을에 끝목할만한 성과를 보여 만화한다면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일겠는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